‘제23회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제12회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휴전결의안’ 기간 중 남북간 군사훈련 상호중지 촉구 결의안

의 안 번 호	10222

발의연월일 : 2017. 11. 17.

발 의 자 : 유은혜・오영훈・이수혁
윤관석・문희상・우상호
김철민・위성곤・송기헌
김종민・기동민・노웅래
조승래・김영호・유동수
백혜련・김상희・박완주
김민기・신창현・민병두
김두관・이 훈・전해철
박주민・김병기・제윤경
어기구・정춘숙・김경수
김병욱・인재근・소병훈
유승희・박 정・박재호
정재호・안호영・이해찬
원혜영・김현권・남인순
강창일・박홍근・이학영
박광온・박영선・고용진
신동근・전재수・설 훈
의원(51인)

주 문

대한민국 국회는 2017년 11월 1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72

차 유엔총회에서 193개 회원국 중 157개국의 공동제안을 통해 표결 없이 만장일치로 채택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및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휴전결의안'의 취지를 적극 실현하기 위하여 휴전결의안 기간 중(올림픽 개막일 이전 7일부터 패럴림픽 폐막일 이후 7일까지) 남북간 군사훈련을 상호중지할 것을 촉구한다.

제안이유

유엔은 2017년 11월 13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72차 유엔총회에서 평창 동계올림픽대회 개막(2018년 2월 9일) 7일 전부터, 평창 동계패럴림픽대회 폐막(2018년 3월 18일) 7일 후까지 적용되는 '휴전결의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하였음.

'스포츠와 올림픽 이상을 통해 평화롭고 더 나은 세상 건설'이라는 제목의 평창 대회 휴전결의안의 주요 내용은 ▲ 올림픽 기간 전후(개최 7일 전부터 종료 7일 후까지) 적대행위 중단 촉구 ▲ 스포츠를 통한 평화, 개발, 인권 증진 ▲ 평창 대회를 통한 한반도 및 동북아에서의 평화분위기 조성 기대 등임.

유엔총회가 채택한 '휴전결의안'은 북핵위기 등으로 한반도 및 동북아에 조성된 긴장 분위기를 평화분위기로 전환시켜 대한민국이 목표하고 있는 '평화올림픽'을 실현할 수 있는 매우 의미 있는 결의안이라 할 수 있음. 세계 각국 또한 이러한 역사적 의미에 공감하여 표결 없는 만장일치로 호응하고 화답한 것임.

이에 적대행위 중단과 평화분위기 조성을 골자로 하는 ‘휴전결의안’의 취지를 한반도의 긴장 해소를 위한 중요한 기재로 활용하고, 남북간의 실질적인 평화조치 이행을 통해 국제사회의 호응과 신뢰에 부응하는 후속 조치가 필요하다는 판단에 따라, ‘휴전결의안’의 효력이 유지되는 기간 중에 긴장을 고조시키는 일체의 남북간 군사훈련을 상호 중지하는 조치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제출함.